

56k급 '소프트모뎀' 개발

가산전자

가산전자가 모뎀의 핵심기능인 데이터 변조와 복조 기능을 모뎀 전용 칩이 아닌 컴퓨터의 CPU가 대신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저가형 56kbps급 소프트모뎀인 「엑시드 56k 모디오」를 최근 개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산전자가 공급하는 「엑시드 56K 모디오」는 미국 록웰의 모뎀 기술인 56K플렉스 프로토콜을 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최근 확정된 56kbps 모뎀 프로토콜 표준인 「V.9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또 이 제품은 데이터를 업로드할 경우 PC 내부에서 하드웨어적으로 통신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존 모뎀방식과는 달리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MA)로 곧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모뎀에 비해 10% 이상의 속도향상은 물론 ISA슬롯 한개만으로 사운드와 모뎀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슬롯 절약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엑시드 56K 모디오」는 10만원 안팎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기존 56kbps 모뎀에 비해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데 사운드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16비트 사운드기능을 갖춘 장점이 있다.

이밖에 이 제품은 각종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윈도95와 윈도98, 윈도NT 4.0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 매출 1,200억 목표

광전자

트랜지스터업체인 광전자가 올해 매출목표를 1,200억원으로 수립, 84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광전자는 최근 환율인상과 지난해 투자한 IC조립, 광 다이오드 일관가공 등 신규사업이 본 궤도에 오름에 따라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 매출액 813억원에서 50%증가한 1,200억원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광전자측은 이를 위해 동남아에 치중해온 영업지역을 미국·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업체로부터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방식을 확대하는 등 해외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는 직수출 비중을 높여 채산성 확보에도 치중기로 했다.

주력 제품인 트랜지스터의 경우 기존 SOT타입에서 점차 부가가치가 큰 표면실장용(SMD)타입으로 전환, 지난해 30% 수준에서 올해말에는 5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해 신규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다.

또 신규 진출한 IC조립분야는 올해 14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기로 했다. 광전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올해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액에서 로컬 수출을 포함한 수출물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이같은 매출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형가전사업 강화

동양매직

동양매직이 전기다리미·진공청소기 등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소형가전제품을 출시, 사업을 강화한다.

동양매직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 자사의 가전연구소에서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달말 디자인과 바닥코팅기술을 혁신한 건식다리미 출시를 시작으로 4월에는 고효율저소음 등의 기술수준을 갖춘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스팀 분무량을 크게 개선한 습식다리미, 중저가 진공청소기 등으로 제품군과 모델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동양매직은 이들 품목에 대해 150만달러 가량의 첫 수출 오더를 따 놓은 상태로 내수 판매와 시동에 남미·동유럽·아시아 등으

로 수출을 병행하면서 소형가전 매출확대를 꾀할 전략이다.

협력업체에 1천억 지원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부품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 구매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총 1천억원을 투자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대우전자는 98년도 대우전자 협우회(협력업체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열린 구매시스템 도입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열린 구매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품질·납기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발굴, 주요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업체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대우전자는 공개경쟁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제지한 신속한 부품공급은 물론 국내외 관련업체 정보 데이터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전자는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TV·VCR·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모니터 등 주력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가격 등 각종 정보와 부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협우회 회원사들의 품질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1천억원을 투자해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원자재 구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와이드 비디오 TV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프랑스 월드컵 특수에 대비 국내 최초로 32인치 와이드 비디오 TV(Model명 : DVN-32F2)를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이 제품은 밝기 신호와 색상 신호를 입체적으로 한 번 더 분리해주는 3차원 침단분리 회로를 채용하여 색번짐이나 어둡거림 현상을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두화면 동시 시청이 가능한 물론 국내 유일한 신기술인 마우스 탐색 기능이 있어, 3, 8, 13개 화면을 분리하여 시청할 때 위치 버튼과 주·부 전환 버튼을 이용하면 원하는 화면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다이내믹 클리어 브라운관을 채용하여 적·녹·청의 3원색

재생도를 최대한 살려 색순도를 10% 이상 높임으로써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브라운관의 증양은 물론 주변까지 별도 초점을 맞추는 이중 초점 방식의 최첨단 고화질 회로를 도입, 브라운관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화면이 일그러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대화면의 모서리 부분까지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방사형으로 음을 전파 시킴으로써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고음부터 중저음까지 풍부하고 웅장한 음을 최고 60W까지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NRS(Neo Radial Sound) 스피커, 고감도의 완벽한 음성 출력이 가능한 ▲6헤드 하이파이 스테레오를 채용했으며, ▲그래픽 메뉴 화면 ▲사용 설명서 없이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오토데모 기능 ▲어린이 시력 보호를 위한 오토게임 모드 ▲캡션 테이프 재생 기능 등이 있다.

서미스터사업 대폭 강화

대우전자부품

대우전자부품이 TV 및 모니터에 주력 채용되는 서미스터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94년부터 서미스터사업을 본격화한 대우전자부품은 TV브

라운관과 모니터용 브라운관시장의 호조로 도입전류치(In Rush Current)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온도계수(NTC)파워서미스터와 디가우싱용 정온도계수(PTC)서미스터 수요가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서미스터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특히 지난해 월 25만개씩 생산, 공급해온 PTC서미스터 외에 최근엔 NTC파워서미스터도 기존 시멘트저항기를 대체해 브라운관과 모니터용 브라운관에 확대 채용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LG전자에 월 15만개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디스플레이업체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3D 그래픽카드 수출 호조 '신바람'

두인전자

두인전자는 최근 전세계적인 게임시장의 확대추세에 힘입어 자체 개발한 3D 그래픽카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두인전자는 지난해부터 미국·유럽지역에 2백만달러 상당의 델피노 128 공급계약을 체결해 이미 선적에 들어간 상태며, 오는 6월까지 1백만달러 이상의 공급계약이 추가로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두인전자는 올해 델피노

128에 이어 통합 VGA카드인 「오스카V(수출명 미디어캠프V)」가 이스라엘·스페인 등 유럽지역으로의 공급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다 환율급등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올해 수출목표인 2,500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문인식 키보드」 CeBIT서 선봬

삼성전기



반도체 유출사건을 계기로 기업마다 보안유지를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삼성전기에서는 19일에서 25일까지 독일 하노바(HANNOVER)에서는 CeBIT(하노바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박람회)을 겨냥해 컴퓨터 정보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키보드(K/B)를 선보인다.

지문인식 키보드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기존 PC의 경우 보안유지에 한계가 있지만, 삼성전기가

개발한 지문인식 키보드는 사용자의 지문이 감지되어야만 PC가 작동되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유지장치다.

개발 초기, 외장형이었던 지문인식모듈을 키보드 내부로 옮기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됐던 모듈의 크기를 기존의 1/3수준으로 소형화시키는데 성공, 지문인식모듈이 내장된 키보드가 탄생 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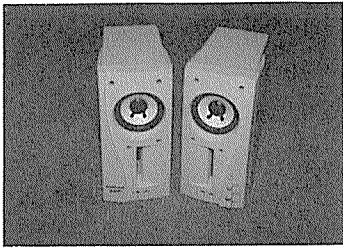
특히, 키보드에서 스캐닝된 대용량의 지문 화상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기위해 삼성전기는 최고속도 12메가(M)bps를 지원할 수 있는 USB(Universal Serial Bus) 허브(Hub) 키보드를 사용했다.

또한, 이 키보드는 USB 프로토콜(Protocol)을 사용하기 때문에 USB 드라이브가 내장된 PC(WIN 95 OSR-2버전 이상)환경에서 작동되며, 키보드 내부에 허브(Hub)가 내장되어 있어 4개의 부가 입출력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전자화폐에 대한 보안장치로 「지문인식 장치」를 이용한 현금결제 방식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지문인식 키보드 시장은 원 98의 출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 스피커」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USB(Universal Serial Bus) 규격의 스피커 개발에 성공했다.

이 스피커는 선진업체인 펠립스(네덜란드)와 알텍랜싱(미, 스피커전문업체)에 이어 삼성전기가 개발한 것으로, 오는 6월 관심을 모으고 있는 WIN '98 출시를 앞두고, WIN '98이 채용하고 있는 USB 규격에 맞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USB규격이란 컴팩, IBM,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전세계 대형 컴퓨터 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USB 포럼(Forum)을 통해 차세대 PC 사양으로 정해진 것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WIN '98도 이 USB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WIN '98이 채용하고 있는 사양 중에는 기존의 직렬과 병렬 포트대신 USB 포트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주고 받기 때문에 소리를 재생하기 위한 별도의 사운드 카드가 필요없다.

결국, 이전에 사용되던 아날로

그 방식의 스피커는 WIN '98 환경에서 사용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삼성전기가 개발한 USB 스피커의 장점은 WIN'98 환경뿐만 아니라 사운드 카드가 필요한 기존 PC사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튜얼 타입의 스피커라는 점이다.

또한, 음질면에서도 기존의 사운드카드에서 발생되던 고질적인 노이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훨씬 생생한 원음을 재생할 수 있다.

디지털TV 칩세트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이어 업계 두번째로 디지털TV용 핵심 칩세트 개발에 성공,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TV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년간 약 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디지털TV에 사용되는 오디오·비디오 등의 핵심기능 전부를 지원하는 칩세트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칩세트는 △ 디지털 방송TV 전파를 수신해 음성과 영상정보를 처리하는「8VSB 복조기」를 비롯, △ 반사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를 제거하는「채널등화기(이퀄라이저)」 △ MPEG2로 압

축된 디지털 영상정보를 원래 형태로 복원시켜 TV화면에 내보내는「비디오 복호화기」 △ 영상데이터를 TV화면 크기에 맞도록 조정하는「포맷 컨버터」 △「그래픽 처리용 프로세서」 △ 돌비 AC3 규격으로 압축된 오디오 정보를 복원시키는「디지털 사운드 반도체」 등 6종류의 반도체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칩 가운데 디지털 사운드 칩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문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처리(DSP)반도체에 S램을 결합시킨 메모리 복합칩으로 디지털 TV 오디오 부분의 핵심 반도체다.

한편 올해 하반기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험방송을 시작하는 디지털TV시장은 오는 2006년까지 약 1억9천만대, 3천억 달러를 웃도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포화 코일 개발

삼화텍콤

트랜스포머 전문업체인 삼화텍콤이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 아모퍼스 코어를 사용한 기존 제품에 비해 제조원가를 크게 낮춘 가포화 코일(리액터)을 개발했다.

삼화텍콤은 지난 6개월간 삼화전자 연구소와 협력, 잔류자속밀도(Br)를 포화자속밀도(Bs)와 유사

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고각형성 재질의 페라이트 코어 개발에 나선 끝에 최근 이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사용한 가포화 코일을 상품화하는데 성공, 국내 스위칭모드 파워서플라이(SMPS)업체를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포화 코일은 각종 SMPS의 출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증폭기의 핵심부품이다.

소형 정밀모터 새 주력 사업 육성

삼흥사

모형기관차 및 소형정밀모터 전문업체인 삼흥사는 최근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소형정밀모터를 모형기관차에 이은 차지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삼흥사는 국내외 수요자들의 개발요구를 적극 수용해 기존 기어드모터 외에 최근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및 첨단 멀티미디어용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핑모터·BLDC모터 등으로 생산제품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시장에 치중하느라 다소 소홀했던 소형정밀모터 수출확대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으로 올초 모터사업부 내에 별도의 해외영업부를 신설, 본격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올 상반기중에 2억여원을 투자, 생산설비를 지원

해주는 형태로 중국 동관에 있는 현지업체와 협력해 5, 6월경부터 월 50만개 가량의 소형정밀모터 입가공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삼흥사는 이를 통해 현지 국내 공장과 중국 상해공장을 포함, 총 월 110만개 규모인 소형모터 생산능력을 월 160만개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모터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정도에 불과했던 직수출 비중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구매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수출확대에 전력투구, 소형모터 부문에서만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부가 제품 수요 늘어 매출 급증

싸니전기공업

국내 최대의 수정디바이스업체인 싸니전기공업이 IMF한파와 경기침체 속에서 영업실적이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말 법인에서 12월말 법인으로 결산기일을 변경한 싸니전기는 최종 집계된 지난해(10~12월)의 3개월치 영업실적이 93억원에 달해 전년(73억원) 동기대비 27%가량 성

장했으며 2억8,000만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IMF구제금융 도입에 따른 외환위기 여파 속에서도 싸니전기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환율인상에 따른 적잖은 환차익과 경쟁업체들의 상대적인 부진, 그리고 표면실장부품(SMD)형 수정디바이스와 오실레이터 응용제품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싸니는 이에 따라 이같은 영업호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전반적인 경기침체 예상 속에서도 이번 회기 매출목표를 지난해 연간매출에 비해 17% 정도 늘어난 470억원으로 잡았다.

싸니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SMD 수정디바이스 및 표면탄성파(SAW) 필터사업을 올해 본래도에 올려놓은 한편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직수출비중을 크게 높여 환차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4기가 D램 소자 공정 개발

LG반도체

LG반도체는 포항공대와 산학협동으로 X-선 노광기술을 이용하여 4기가 DRAM 제품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0.13미크론(1μm)은 1백만분의 1m)급의 차세대 CMOS 소자 제조공정을 국내 최

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현재 256M DRAM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0.25 μ m급의 회로 선폭 공정에 비해 16배 이상의 집적도를 갖는 기술이다.

LG반도체는 이를 이용해 기가급 D램 반도체 개발은 물론 고성능, 저전력의 차세대 로직(Logic)제품의 개발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반도체와 포항공대는 지난 95년부터 4기가(Giga) 이상의 DRAM 제조에 유력하게 쓰일 것으로 평가되는 X-선 노광기술을 공동개발해 왔으며, 96년말 0.13미크론급 노광기술 개발에 이어,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0.10미크론 이하의 노광기술과 0.13미크론급 CMOS 소자의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 개발의 특징은 향후 실제 양산공정을 염두에 두고, 포항공대내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의 X-선 노광장치와 LG반도체의 광노광장치를 혼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존 반도체 양산라인의 노광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의 노광기술이 부적합한 일부 공정에 포항공대내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의 X-선 노광장치를 이용한 노광 기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제품의 양산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와 개발기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0.13 μ m급 CMOS 소자 공정은 반도체의 고집적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저전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인 1.2V의 저전압 CMOS 동작을 실현하였다.

LG반도체는 X선 노광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약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으며, 그동안 해외특허 9건을 포함해서 총 24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멀티 복합칩 수출 호조

LG반도체

LG반도체가 자사의 대표적인 비메모리 제품으로 중점 육성중인 멀티미디어 복합칩(MPACT)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LG반도체는 이달중 미국의 대형 PC업체 및 대만의 카드업체들과 15만개의 MPACT 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의 유력 보드업체들과도 공급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MPACT가 매출호조를 보이는 것은 최근 1천달러 미만의 저가 PC가 시장의 주력제품으로 부상하면서 PC업체들이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MPACT의 처리속도와 기능을 향

상시킨 2세대 제품이 나오면서 신뢰성 측면도 크게 보장됐기 때문이다.

MPACT는 2차원/3차원 그래픽·DVD영상처리·영상회의·오디오·팩스모뎀(56kbps)·PC전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처리하는 복합반도체로 LG반도체가 지난 95년 미국의 설계 벤처회사인 크로메틱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첨단 비메모리 제품이다. MPACT를 채용한 멀티미디어 PC는 종전 동일한 기능을 내기 위해 여러 칩을 채용한 PC에 비해 50달러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반도체는 MPACT를 채용한 보드의 경우 18M의 램버스 D램 2개가 장착하도록 돼있어 MPACT칩 매출 뿐만 아니라 자사의 램버스 D램을 동반 판매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설명했다.

LG반도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MPACT의 기능을 다양화해 원가에 민감한 미국 PC업체와 대만 보드업체를 집중 공략, 올해 안에 200만개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할 방침이다.

음성처리보드 국산화

엑셀전자

그동안 미국 다이얼로직·보스

턴테크놀로지 등에서 전량 수입해 오던 음성처리보드가 국산화됐다.

통신 벤처기업인 엑셀전자는 지난 9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재생 및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자료를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착신해 응답할 수 있는 4회선급 음성처리보드를 개발하고 다음달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엑셀전자가 개발한 음성처리보드는 입출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음성사서함·자동교환·자동발신·음성정보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최대 48회선까지 증설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외산 보드와도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다. 또 핵심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산화해 외산과 비교해 가격측면에서 저렴할 뿐 아니라 HW 및 SW를 자체 개발해 새로운 기능 추가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설 계됐다.

3CDP 리시버앰프 개발

제이드스타

앰프 크기의 오디오 단품 하나에 CD재생, AM/FM 라디오 수신 및 홈시어터 기능을 모두 탑재한 절약형 오디오가 국내 처음으로

로 개발됐다.

제이드스타코퍼레이션은 기존 AV리시버앰프에 CD 3장을 재생할 수 있는 CD플레이어를 내장한 새로운 개념의 AV리시버앰프(모델명 RP992)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AV리시버앰프에 3CD체인저를 결합해 이 제품 하나로 CD 재생이나 라디오 청취 등 오디오의 기본적인 기능 및 홈시어터 기능 등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V리시버앰프란 통합앰프와 라디오 수신용 튜너를 결합한 제품으로 이를 TV·VCR 등 영상기와 연결하면 집에서도 극장에서와 같은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지만 CD를 듣기 위해선 AV리시버앰프에 별도의 CD플레이어를 연결해야만 했다.

제이드 스타코퍼레이션은 이 제품을 미국 가전업체인 RCA사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기로 하고 오는 5월부터 중국공장에 월 평균 4만대씩 생산할 예정이다.

사내 정보통신대학 개설

(주)콤텍시스템

종합 정보통신회사인 (주)콤텍시스템은 기술중심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내·정보통신대학을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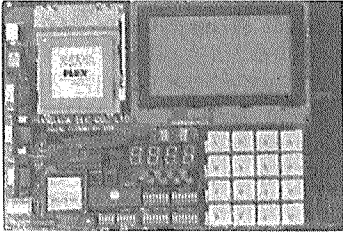
콤텍시스템의 정보통신대학은 경영지원직, 영업직, 기술직, 연구직, 제조직군으로 나누고 직무별로 초, 중, 고급 과정을 매주 수요일과 매월 2, 4주 토요일에 정보통신 전문가 과정과, 업무능력 향상과정을 개설하고 외부 강사와 사내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또, 교육과정을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으로 나누어 평균 20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보고서와 필기시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평가하는 교육학 점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술을 습득케하는 인력의 고급화로 불황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초, 중, 고급의 데이터 통신, LAN, WAN, 프레임 릴레이, 네트워크장비, NMS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과 유지 보수, 금융솔루션 등 정보통신 관련 이론 및 실습과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무역, 재무, 마케팅, 시장조사,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등 총 100여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체 인력의 50% 이상이 정보통신 관련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콤텍시스템은 정보통신 대학의 개설로 임직원들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회로설계 트레이닝키트 발표

한백전자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10만 게이트 수준의 주문형반도체 (ASIC)를 개발할 때 칩 제작공정을 거치지 않고 회로설계 상태에서만 칩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디지털 회로설계 실습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한백전자는 대전산업대 전자공학과 이승호교수팀과 공동으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E)의 지원을 받아 이같은 디지털 회로설계 트레이닝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현재 대학이나 반도체설계업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알테라사의 「MAX PLUS II」라는 디자인 툴을 사용해 설계된 디지털 회로를 연결해 시뮬레이션만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386, 486 CPU 등 칩 설계시 제작공정을 거쳐야만 확인이 가능했던 칩의 동작 여부를 웨이퍼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테스트할 수 있어 ASIC 제작에 따른 공정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장비는 TTL·논리회로·디지

털 회로 수행기능, 사용주파수 선택기능, 컴퓨터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해 입력하는 커넥터 기능 등이 포함돼 있으며 회로의 작동여부를 자체의 그래픽 LCD와 7세그먼트, LED는 물론 외부의 PC 다른 출력 장치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 최고속 2M S램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세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2M S램을 개발했다.

S램은 지속적으로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한 D램과 달리 전압만 인가되면 정보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소자로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 낮은 전력소모 등으로 휴대폰·PDA·HPC 등 개인휴대 정보기구나 PC의 캐시메모리로 이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현대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S램은 종전 제품보다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4배 이상 향상시킨 초고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이 입력신호로부터 출력 데이터가 나오는데 200나노초가 걸리는 데 비해 이 제품은 55나노초만에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 2V 동작전원을 실현, 전력소모량을 기존 제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췄으며 풀 CMOS셀을 채택, 대기상태에서의 전력소모율

도 20%에 불과한 초절전형 제품이다. 현대전자는 이번 S램에 초소형 패키지인 마이크로 BGA (Ball Grid Array)패키지를 적용해 크기도 기존 제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세계최경량 디지털휴대폰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90g의 세계 최경량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디지털 휴대폰을 개발했다.

현대전자는 ALIVH(Any Layer Inner Via Hole) 인쇄회로기판(PCB)과 1셀 방식의 초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하고 단말기 부품 및 회로의 최적화기술 등을 통해 무게가 90g에 불과한 디지털 휴대폰 「걸리버」를 개발, 다음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모델명 D100)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조그스틱 기술을 채택, 플립을 닫은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며 이어폰 마이크기능, 음성인식기능, 수신 멜로디 입력기능, 바이오 리듬 체크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췄다.

특히 이 제품은 무게 100g 미만, 부피 100cc, 통화대기 100시간 등 이른바 「트리플 100」의 특성을 구현했으며 크기 122×41×23mm의 플립형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또 방수 키패드를 채택해 사용중 다이얼 버튼 부위가 물에 젖어도 내부에 스며들지 않도록 했으며 최대 500개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해 발신·이름·지역번호 순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화번호 수첩기능도 갖췄다.

대대적 제품 구조조정

해태전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자업체

들의 본격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태전자가 사업 구조조정에 이어 전자업체로는 처음으로 대대적인 제품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태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오디오·전화기 등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모델을 단종하는 제품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태전자는 이를 위해 최근 모델 구조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현재 생산하는 9,077개 모델

가운데 매출기여도가 낮은 5,802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3,275개 모델을 주력 생산할 계획이다.

해태전자가 생산을 중단하는 제품은 AV기기 4,510개 모델, 통신기기 899개 모델, 기타 393개 모델이다.

해태전자는 이같은 한계제품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제품 생산성이 10% 향상되고 제반 관리비용을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